

간추린 사회교리: 가톨릭 사회 교리 연구

Carolyn D. Townes, OFS, 국가 형제회 정의평화 창조보존위원회

주일마다 그리고 축일에,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는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다양한 논제에 대해 다른 무수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 정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조건적인 협조와 지지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개별적으로 스스로 행동하도록 허락해야 한다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스스로 행동 할 수 있게 해 주거나 촉진해 주는 것이 없을 때 그 문제들이 모호해지고 분명하지 않아 행동하는데 질척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톨릭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러한 분명하지 않고 모호한 상황에서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언제 어떻게 돕고 지원하고자 할 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프란치스칸인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의 복음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또는 성 프란치스코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묻게 됩니다. 바로 그때 가톨릭 사회 교리가 필요합니다. 성서적, 도덕적 그리고 교리에 근원을 두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어 주는 특히 사회 정의 평화에 관하여 우리를 안내해주는 나침반이 가톨릭 사회 교리입니다.

“간추린 사회 교리” 는 2004 년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의 요청으로 교황청 정의 평화 평의회에서 출간하였습니다. 이 교리는 2005 년까지의 전반적인 사회문제에 관한 문헌들을 집대성한 가톨릭 사회교리서입니다. 모든 재속프란치스코 회원들은 가톨릭 교리서와 다른 중요한 문헌들과 함께 이 간추린 사회교리서도 소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장 선반에서 먼지만 쌓여 가게 두는 책들과 달리 이 교리서는 책장 선반에만 꽂아 두지 말고, 수시로 꺼내어 읽고 연구하고 사용해야 하는 문헌입니다. 450 쪽이 넘는 이 문헌은 가지고 다니며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고, 오히려 잠자기 전에 읽기에 아주 좋은 벗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불면증을 해결해 줄지도 모르겠지만, 정의, 사랑 그리고 평화에 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은 이 문헌을 읽고, 또 읽게 될 것입니다.

“이 교리서는 복음에 조명되어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기에 복음 선교 사명의 도구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 세 회칙 “백주년” 54 항) 자연법에 근거한 교회의 사회 교리의 신념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교회의 믿음 안에서 입증되며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엄격한 은둔생활을 하지 않는 한, 항상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만 합니다. 하느님의 다른 자녀들과 관계를 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행동하며, 존재하는 다른 이들과 연대를 가지며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며 함께 존재할 수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으로서 우리는 이미 형제회 안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가진 하느님의 훌륭한 독립적인 자녀이기, 우리와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는 훌륭한 독립적인 하느님의 다른 자녀들과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갈등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이런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갈등은 정상적이며 필요합니다. 폭력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다른 자녀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우선, 그들도 하느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의 형제자매들이 하느님의 자녀임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여길 때 그들은 원수이거나 물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수라든가 물건이 어떻게 취급되는지 압니다. 이 간추린 사회교리 문헌은 그들 역시 하느님을 닮은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비록 우리와 옷을 달리 입거나, 냄새가 달리 나거나, 교회에서 나와 같은 열에 앉거나 (두 번째 열, 끝자리에 앉거나) 상관없이 모두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회칙에서도, 교회와 교리에서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